

“줌(Zoom)으로 참석 가능합니다.”

혹 이런 표현에 익숙 하신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저희 사역에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줌으로 각종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국제회의의 경우 시차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곳 인터넷 사정이 불안정해서 회의가 있는 당일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했던 경우도 있어서 온라인 모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 카니누와 사람들도 줌을 사용할까요? 물론 아니지요. 전기도, 전화도 없으니 인터넷은 전혀 딴 세상 이야기지요. 저희도 마을에 가면 인터넷이 뚝~ 하며 살고요.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회의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소라고둥! 정답입니다~ 사진 보고 눈치채셨지요? 회의가 있는 날 이른 아침부터 담당자가 소라고둥 나팔을 불어댑니다. 때론 마을을 돌아다니며 목청껏 ‘오늘 모임이다’ 광고를 하기도 하지만, 나팔 소리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은 다 안답니다. 보통 아침에 나팔을 불고 점심때가 훌쩍 지나 다시 한번 나팔을 불니다. 이제 곧 회의를 시작하니 모여 달라는 의미지요. 그 이후로도 한참을 기다려야 회의가 시작되지만, 회의가 끝났다고 바로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회의 장소가 주로 망고나무 그늘이라 삼삼오오 모여 미처 못다 한 얘기들을 나누고, 해가 떨어질 즈음 저녁을 준비하러 집으로 가지요.

세상 어디에 이런 사람들이 살려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저희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카니누와 종족은 파푸아뉴기니 동남쪽 밀른베이주에 있는 굿이너프섬 북쪽에 살고 있고, 인구는 800여 명 정도입니다. 이웃 이두나 종족은 만삼천 명이 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카니누와 종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굳건히 지키며 카니누와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번역 사역은 카니누와 번역팀이 하지만,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출판이 되기까지는 카니누와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니누와 성경 번역은 200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지원이 부족해 번역 사역이 중단될 뻔했던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번역자들도 있고 번역위원회 의장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마침내 지난 2016년에 카니누와 미니 성경이 봉헌되었습니다. 카니누와어로 공식적으로 출판된 첫 번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여부를 떠나 카니누와 사람들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미니 성경 봉헌식 이후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카니누와 종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도 카니누와 공동체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번역 사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 카니누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 올해 선출된 번역위원회 의장 버나드가 마을 공동체와 번역팀 간의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 2월 알로타우에서 요한복음 12~21장을 속테스, 레비와 함께 수정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 마을에서는 책이 번역팀과 함께 마태복음 1~7장 초역을 점검합니다. 마을은 우기라 비가 많이 오는데 좋은 날씨를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8)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한국은 다음 주에 설날이네요. 새해 인사 기쁜 마음으로 다시 드립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